

# “러 군용기 침범 반복맨 더 강력 조치”

### 정의용 靑 안보실장,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에 항의 메시지

### 러 A-50, 중국과 동해상 KADIZ 침범... 우리 군, 기관포 360여발 경고사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연방안보회의(SCR) 서기에 강력 항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 실장은 파트루셰프 서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정 실장과 김현중 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한 상황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파트루셰프 서기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정의용 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로 미러·한러 사이의 안보 이슈 등을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합류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남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A-50) 1대는 오전 9시께부터 독도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했고, 출격한 우리 군의 F-15K과 KF-16 전투기의 경고방송·차단비행에 이은 두 차례 경고사격(기관포 360여 발)을 받고 이탈했다.

청와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과 관련해 안보실 차원에서의 별도 항의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 KADIZ를 넘어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엄중해 별도의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KADIZ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블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조치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고, 러시아의 경우 거기에 더해 안보실장의 메시지 발송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 의도에 대해 “지금 말 쓰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어 “의도를 가진 것인지 조종사의 실수인 것인지 등 러시아 측에서 내부 상황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조정식 민주 정책위의장

### “내년 예산안, 공격적 편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집행과 함께 내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삼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민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 집행 점검과 일본 경제침략 등과 관련한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일본 경제침략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통화당국의 이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격적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을 국정조사, 안보장 사용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 심사 재개·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박찬대 원내대변인, 윤호덕·고용진 표창원, 맹성규·김영호·서삼석·이규희·김정호·제윤경·임종성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 문 대통령 “日 대응·추경만큼은 정치권이 힘 모아주길”

### 민주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만큼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격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예산 등이 담긴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 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아쉽다)”라며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윤호덕 원내부대표는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며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담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 지역 자원 연구·활용방안 모색

### 도의회 농산경위,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방문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는 2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을 찾아 지역 자원의 연구와 활용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용구 위원장 및 위원들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생명연 전북분원이 생물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도내 우수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도내 우수기업이 연구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최초 국책연구기관으로 2006년 개소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황영석 위원(김제1)은 “그동안 방사선이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제품들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웠다”며 “특히 농산물 검역, 신물질 육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마을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자연가와 농식품업 마이코를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김철수 위원(정읍1)은 “자연가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코는 지역 농산물을 특화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농산경위 위원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가 지역 우수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의 특화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김진성 기자

## “특성화고, 개선책 필요”

### 도의회 교육위, 전주생명과학고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3일 오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진형식(비례대표) 의원은 “특성화고 입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뿐만 아니라 학급당 정원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성화고는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들 전공과목이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활발히 운영 중인 농산물 판매 실습장과 관련해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홍보를 확대해 이용객들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판매확대는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한 이후 필요할 때 공

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특성화고는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특정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맞춤형 교육으로 정체성을 찾는 곳”이라며 “특성화 사업을 통한 산학 연계와 다양한 교육활동 등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최영규 위원장은 “현장실습 중에 각종 사고에 따라 실습업체도 줄고 있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감소했다”면서 “특히,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상수업보다는 현장실습 기간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실습위주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생산한 농산물 판매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제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